

제 102 호

연중 제 32 주일

(강림 후 23)

1974. 11. 10.

순정이

발행인	김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②3498)

【강론】



목이 탐니다

안용기 신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개의 원리로 합성된 공동체로 출발합니다. 정신과 물질, 곧 영혼과 육신입니다. 이 둘은 하나의 공동체로 한 인격을 형성하며 또한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요소는 항상 상대방을 위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공동체적 한 인격은 모여서 가정, 사회, 국가 더 나아가서는 인류라는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큰 공동체에 있어서도 한 인격에서와 같이 정신과 물질, 종교와 정치등 상호간에 협조가 없이는 건전한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적 한 인격이나 공동체적 인류는 존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행동을 합니다. 목적은 “삶”이요, 이 “삶”은 영원을 향합니다. 그런데 철로를 벗어난 기차가 기관차부터 시작해서 맨 끝 객차까지 차례로 목적과 방향을 잃고 쓰러지듯이, 또는 포도 줄기에서 돌아난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어야 할 방향과 결실의 목적을 잃고 메말라 땅으로 떨어지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인 하느님 아버지와 신비적 공동체에서 이탈한 아담은 본질적인 목적과 방향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작용하시고, 마침내 베를레헴의 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극적으로 “탄남”의 환희와 알렐루야가 지상에 메아리 친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요, 안타까움이요, 갈망이요, 절정인 “목마르다” 이 한 말썸으로 당신의 공동체로의 복귀를 염원하고 제섭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 곧 비 인간적인 폭력이나 금력이나 향락으로 배를 채우고 자위하려고 발광하는 탕자와 같은 인류를 보는 하느님 아버지의 목은 탐니다. 응답을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안에 살고 있는 한 인간 자체의 완전한 봉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느님에로의 복귀!

바쁜 시간과 아까운 재물과 힘든 노동의 불행없이, 끌리는 향락의 절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당신에로의 복귀!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참다운 지상의 평화가 올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 자비의 표현의 발로였던 골고타! 이제 제 2의 골고타에 의지하고 희망을 두는 우리를 도와 주소서.

<부안 본당 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 (1) 개회식
 - **입당송** 주여, 내 기도 어천까지 높이 미치게 하사,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 (2) **말씀의 전례**
 - **제 1독서** (마카베 후서 7: 1-2, 9-14 경향잡지 11월호) 임금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되살리시리라.
 - **창세기** ② 주여, 깨어나 당신을 피움으로 내 흠족하리다. 야훼님 들으소서, 죄없는 자의 사연을, 내 부르짖는 소리를 굿어 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시울로 애원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어 들어주소서 ②.
 - **제 2독서** (테살로니카 후서 2: 15-3: 5 성서 p. 473) 하느님이 힘을 주셔서 온갖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 **알렐루야** 알렐루야 죽은 사람들 중 제일 먼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히 있으소서. 알렐루야.
 - **복음** (루카 20: 27-38 성서 p. 186)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고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 **신자들의 기도**
 1. 위경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어리석은 위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어리석음에서 헤어나 참 “삶”의 지도자가 되도록 성신주소서 ②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식량부족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어,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도록 은총주소서 ②.
 3.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거리의 불쌍한 형제들이 곧 당신임을 알고 느끼어, 불쌍한 나의 형제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은총 주소서 ②.
 4. 죽은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잘살려고 노력하다 죽은 우리 형제들을 당신의 품으로 맞아들여 주소서 ②. + 우리주 예수의 자비로우심이 모든이에게 임할것을 믿으며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주 예수..... ② 아멘.
 - (3) **성찬의 전례** □ **불린** □ **성찬식**
 - **영성체송**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 풀 누여주소고 고이 쉬라 불터로 나를 끌어 주소시다.

* 순정이 산책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 제2차 시국선언 -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에 즈음하여

교회는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에 입각하여 인간의 권리를 선언한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이 인간을 짓밟는 일체의 개인적 폭력이나 공권력의 횡포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실상 교회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인류문화의 어떤 특수형태나 어느 특정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교회가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인간의 법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확신이다. 그러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의 자유를 알리고 선언하며, 궁극적으로는 죄에서 기인하는 일체의 예종과 질곡을 배격해야 할 의무는 그만큼 더 중차대한 것이다.

실로 인간의 인격은 만물위에 초연한 존재이며 그의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이며 불가침적이고 불가변적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의식주를 충분 타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신분선택의 자유와 가정형성의 권리, 교육과 노동에 대한 권리, 명예와 존경에 대한 권리, 정당한 보도(報道)를 들을 권리 자기 양심의 규범을 따라 행동할 권리 사생활을 수호할 권리, 종교분야에 있어서의 정당한 자유를 정당하고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간은 공공생활에 있어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 곧 집회의 자유, 노조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공사간(公私間)의 종교 자유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정부는 시민의 이와같은 개인적 자유 및 공공적 자유를 부강하게 억압하고 탐욕과 부정부패 그리고 정치적 범죄 조작으로 (말미암는) 희생자를 격증시켜 가면서 공동선을 위하기는 커녕 집권층 및 소수 특권층의 사리(私利)만을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제 우리 사제들은 이 부당하고 불의한 현실을 복음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동시에 차체에 다시한번 정부의 명성을 촉구하고 그 조속한 정착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오늘의 현실을 보라!

집권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당하고도 건전한 비판이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 비판이 도리어 총화를 해친다는 논리의 전도(轉倒)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우리 국민은 집권자에게 비판에서의 면제 특권을 일찌기 부여한 적이 없다.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해야하는 것은 국민의 진정한 소리이다. 주권자는 국민이며 집권자는 주권 일부의 수입자로서 공복(公僕)의 대표적 지도자라는 엄연한 진실을 왜 외면하려 드는가? 집권자 특히 행정권의 최고 수입자라도 그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

에는 변함이 없다. 공복일진대 마땅히 주권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만일 그가 주권자인 국민 대중의 비판적 통제때문에 공복으로서의 지도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 영향력을 잃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이 비판적 통제를 탓하기 앞서 공복 자신의 가치관과 지도역량을 반성하고 민의의 진정한 소재를 다시한번 확인한 다음 자기의 정치적 거취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논리가 아닌가? 신문, 방송들의 기업 경영적 메카니즘에 대한 음험한 압력 때문에 집권층에 대한 국민들의 민중통제적 의사표시가 오랫동안 봉쇄되어 왔다고 믿는 선량하고도 정직한 시민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평화적 도보 시위로 그들의 의사를 표시하려 나설때 곤봉과 최루탄, 구류와 기소, 심지어 정부전복과 국가변란이라는 내란죄 적용으로 이를 강압적으로 "다스리려는" 정부의 태도와 저의는 과연 정당당한가? 정부 전복과 더구나 국가변란이라는 음모가 획책되었었다면 그것은 집권층만의 관심사가 아니요, 국민전체가 그 진상을 밝히 알아야 할 중대 사건이다. 그렇다면 세칭 "민청학련 사건"을 심리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는가? 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기소된 사람들도 엄연한 인간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국가를 상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면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사법관리와 법의 운용이 공정하고 독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는 바로 공개재판이 아닌가?

온갖 종류의 살인과 암살, 낙태와 안락사, 인체상해, 육체적 정신적 고문, 고문치사, 고문으로 말미암는 육체 혹은 정신의 불구화(不具化), 납치, 심리적 탄압, 정치적 보복 및 간첩 박해, 구속적부심을 거치지 않는 일체의 불법 연행 및 감금, 유형(流刑) 그리고 이와 비슷한 강제적 귀향조치가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묵인·방조되거나 자행되는 안정과 질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이다. 이것은 끔찍한 죄악이다. 이를 좌시한다면 우리도 그 공범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독재정치는 국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백안시한다. 특히 이러한 독재정권이 장기화 하면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시민들의 비굴과 창 의욕 감퇴라는 불행한 풍토가 만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체질의 취락과 외적에 대한 국방력의 약화를 자초하는 필연성을 자체안에 내포한다. 또한 강압정치는 시민들의 아첨과 부패를 강요함으로써 재화의 공정한 분배는 고사하고 건전한 경제발전마저도 그 기반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집권층이 평범을 넘어선 극기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기는 고사하고 비난에 대한 방패가 있다고 믿어서인지 아니면 비판을 강권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믿어서인지 보통시민으로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치부와 축재,

(3면으로 계속)

<2면에서 계속>

사치와 부도덕을 예사로 자행한다면 이러한 풍토에서 수행되는 반 유톨론적 및 반 유 일체제적 대공투쟁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시국에 처해 있다. 국회의 안팎을 막론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찬반의 시비 나아가서는 도전이 가열화 하고 있으며, 인권을 비롯하여 민주정치를 위한 기본 조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대중과 근로 대중의 생존권과 복리증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간에 심각하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유신체제의 철폐를 주장하고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일련의 움직임은 마침내 휴강과 학생 응징이라는 저급한 사태를 강요받는 결과가 되었고 이러한 사태는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대 시국에 처하여 사실 보도와 또한 사실에 근거하는 현실 비판이라는 언론인 본연의 기능과 사명은 그만큼 더 중대성을 띠게 마련이다. 언론인들이 자구선언(自救宣言)은 그러기에 적기(適期)에 이루어진 쾌거(快舉)이고 우리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와 이러한 중대시기에 우리의 자유 우방 미국의 포드 대통령의 방한에 일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주권자인 국민과 집권층 사이에 민주주의 및 인권의 본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과 분쟁이 일고 있다. 포드 대통령이 한국의 집권자와 특히 이 겹에서 회담을 갖는다는 사실이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포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이 땅위에 민주체제 확립을 하나의 기정사실로서 확인하고 보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상징으로서 왜곡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집권층 자체가 비난해 마지 않았던 사대주의적 자가 당착이 아닐 수 없다. 그의 한국 방문이 우리의 난국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한국민의 민주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이 중대한 계기를 목살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않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방한을 재삼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우리는 어떤 일정한 정치적 이해집단(利害集團)의 선전이나 영향력 경쟁을 의도하지도 않으며 정부의 진문적 정책기술(政策技術)을 논란하려는 것도 아니다. 정치권력의 비대의 남용을 통제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민중의 편에서 서서 그들을 대변하여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에 관한 복음의 가르침을 재천명하고 집권자와 국민의 상호 의무와 권리를 다시한번 작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민주정부 고도의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역량, 국민의 총화와 헌신을 진지하는 기본적 사회정의의 실현이 전전하고 용감한 국군 및 자유우방의 지원과 함께 우리 국가 안보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조건임을 믿는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소신이 국민의 여망에 호응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소신이 관철될 때 까지 항의와 비판, 나아가서는 행동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을 선언하고 다짐한다.

1974년 11월 6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일동

요십이 (68) 김병오



□신간안내□

루가 복음 해설

신자들의 묵상 길잡이 1,300원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
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
준 것이다.

<마태오 25 : 40>

이 주간의 성경

- 11 (월) 성 마르틴노 주교 기념
독서 (이사야 61:1-3a 성서 p.)
복음 (마태오 25:31-40 성서 p. 62)
- 12 (화) 성 요사팍 주교 순교 기념 (14일)
독서 (에페소 4:1-7, 11-13 성서 p. 441)
복음 (요 한 17:20-26 성서 p. 251)
- 13 (수) 독서 (디 토 3:1-7 성서 p. 492)

- 복음 (루 가 17:11-19 성서 p. 177)
- 14 (목) 독서 (필레몬 7-20 성서 p. 494)
복음 (루 가 17:20-25 성서 p. 177)
- 15 (금) 성 알벨르도 주교 학자
독서 (요 한 2서 4-9 성서 p. 551)
복음 (루 가 17:26-37 성서 p. 178)
- 16 (토) 성녀 말가리다 (6·10) 켈투르다
독서 (요 한 3서 5-8 성서 p. 553)
복음 (루 가 18:1-8 성서 p. 178)

제4지구 6개 본당 소식



1. 전주교구 성년대회 (무기 연기)
2.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 (11월 11일<월> 오후 7시, 전동성당에서)
뜻깊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전주 교구 올드레아 (다음주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 ① 모든 꾸르실리스타는 시대의 징표를 바로 읽어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② 주소가 변경된 꾸르실리스타에게는 개별 통지가 안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조국을 위한 기도회 (11월 17일 오후 2시, 전동성당에서, 주최:교구 학생 연합회)
전주 교구내 모든 중·고·대학생은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5. 전주 교구 J.O.C. 체육대회에서 금산 본당 J.O.C. 전종목에서 우승
6. 자연적 주기 배란법에 의한 가족 계획 (빌링스 법) : 11월 16일 오후 2시
주최:가톨릭 센터 부인회

(중안)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③3874 보좌 신부 서석복
사도 회장 이복석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꾸리아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
2. 교무금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3. 교무금 신입 요망
4. 중·고등학생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에 참석 요망
* 추 결혼 (11월 10일 오후 2시)
이정수(암브로시오)와 박정임

1. 교무금 신입 : 11월 15일까지 신입 요망
2. 교무금 미납자 속히 완납 요망
3. 주일금 배가 운동에 적극 참여
4.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 11월 15일
5. 성우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성미 2말 9되 누계 325.5되

(노총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철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신용조합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부녀회 월례회 : 다음주
3. 성 안토니오 재속 형제회 야외행사 (송광사)
오늘 9시30분 본당 출발, 11시 미사
<준비> 도시락, 차비, 삼회원 전원 참석 바람
4. 중·고등학생 월례회 : 공식미사후
5. 교무금 미수 협조 바람
6.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중노 2가 박태수 만원, 이복래 만원, 남노(무명)천원
누계 21,000원, 누계 1,703,552원

1. 상관 사도회 월례회 : 오늘 10시 30분
2. 반회합 : 3, 4, 5반 11월 11일 8시
사도임원 한글수, 강 가타리나
13반 : 11. 12 밤 8시 사도임원 이승현
9반 : 11. 13 밤 8시 사도임원 박 누가 장세시리아
한 마리테레사
6반 : 11. 15 밤 8시 사도임원 한글라라, 심테레사
3. 애령회 조직에 신자들의 참석 바람
4. 반 회합시 한 호에 많은 분 참석 바람
5. 예비자 교리 : 다음 주 부터 10시 미사후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성호
사도 회장 이현재

1. 전체 사도회의 : 공식 미사후
2. 신용조합 임원회 : 공식 미사후
3. 신용조합 월례회 : 다음주
4. 교무금 미수 속히 납부 요망

1. 미사시간 변경 : 평일, 주일 저녁미사 7시
2. 자모회 소식 : 오늘 공식 미사후
3. 신용조합 소식 : 오는 14일 저녁 7시반 신용조합 월례회 있음
4. 애령회 소식 : 둘째주일로서 애령회 특별헌금 있음
5. 구역순회 미사 : 경원동, 중앙동 : 12일(화) 정원동
구역회장님 (미미제과소) 풍남동 : 15일(금) 사도회
감사 장준수백 (남문여관 주인) 저녁 7시
6. 예비자교리 : 월요일 저녁미사후 (7시30분)

◇ 금주의 숲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황 가스발 (규연) 교동 1가 구역장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1지구	고김부신태인정	가정 방문 있음		제3지구	창인동 황 등	예수 성심회 창립총회			
		청춘교실 (매주 화요일 밤 8시) 성모회 첫 토크타임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함사 사도회 및 반장 회합	9,180원 10,880원			본당 살림에 관심을 가집시다			
제2지구	대둔울동	합동 위령미사(다음주일)	1,040원	제4지구	노총동 진자전증	안토니오 재속 형제회 야외행사 사도회	17,466원		
		사도회 임사회	30,800원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15일)	9,000원		
제3지구	고금여주현동	반조직키로 사도회 결의	10,040원	제5지구	남무장진	상관 사도회	13,080원		
		의자 성금	7,820원			사도회 월례회	교무금 자진 신입 바람	본당 살림에 관심을 가집시다	4,037원
		J.O.C. 체육대회에서 우승	2,070원						
교부금 신입 바람	6,820원	사도회 월례회							